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6월 29일(금) ..(음력 5월 16일).. Пятница 29 июня 2018 г. № 25(11679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6월 27일에는 러시아에서 청년의 날 기념한다. 왈츠 연습을 하는 젊은이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의장으로 블라지미르 자이체브 선출

지난 26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의원 회의에서 시두마 의장 선거가 있었다.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블라지미르 자이체브가 유일한 의장 후보로 나선 가운데 16표 중 15표로 선출되었다.

의장직이 2017년 11월부터 공식인 관계로 블라지미르 자이체브가 6개월 이상 의장 대행을 수행해왔다. 시두마 부의장으로는 니콜라이 아르테멘코 의원이 선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두마 의원들의 임기는 9월에 끝나고 정기 새 의원 선거는 9월 9일에 치르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졸업생 82명 금메달 따내

지난 25일(월)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2018년도 졸업생> 금메달 수여식이 있었다. 올해 금메달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김나지아 및 리체이 학교를 비롯해 18개의 학교 학생들 중에서 총 82명이 받았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이다.

이날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은 “금메달은 자신의 성과이자 난관 극복을 증명한다.” 며 졸업을 축하했다.

금메달은 2015년에 46명의 학생이, 2016년에는 41명, 2017년에는 57명이 받았다. 금메달을 받은 졸업생들은 제1리체이 학교에서 19명, 제1김나지아와 제3학교에서 각각 8명, 제3 김나지아와 제 8학교, 제 30 학교에서 각각 5명, 제 6, 16 학교, 제2 김나지아와 제2 리체이에서 각각 4명, 제11, 23, 26 학교에서 각각 3명, 동양김나지아와 제 22학교에서 각각 2명, 제19, 32, 34 학교에서 각각 1명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 2017년 사업 보고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이 26일(화) 시두마 회의에서 2017년 시행정부 사업보고를 했다.

시장에 따르면 시는 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도시정돈사업을 보고 있다. 그간 도시의 20곳의 거리를 정돈하고 보행로 10km 이상을 포장하고 70여 아파트의 외관을 수리했다.

시장은 주택건설의 속도에 있어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자치체 중에서 선두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의 60% 이상은 주중양 도시에서 건설한다. 작년에는 20만9500m² 면적의 주택이 운용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도시에 유치원 2개원이 준공되었다.

시장의 보고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오하구역 원주민, 해당 연승어 쿼터 정해져

사할린 원주민 북방 소수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 소하성수산물조업조직위원회가 연승어 어획량을 규정했다. 오하 구역 원주민 785명은 울성어기에 송어 90 킬로그램과 연어 210킬로그램 어획이 가능하다. 이들은 서북 수역장에서 연승어잡이를 할 예정이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북방 소수민족)들은 이들의 전통적 조업방식에 따라 총 7600톤 어획이 가능하다.

그외 포로나이스크 및 노글리키 구역들의 원주민 북방 소수민족의 대표자들은 개인적인 연승어 잡이를 하고 있다.

사할린에서 농산물 생산 33% 증가

올해 5개월간 사할린주 사회경제발전의 총결산이 이뤄졌다. 지역 제품생산량은 3966억 루블리(2017년 같은 시기의 99.4%)에 달했다. 산업 생산량은 3870억 루블리(98.7%)에 해당했다.

가스 응축액을 포함한 석유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하여 3.1% 감소한 770만 톤에 달했다. 한편, 가스 생산량은 142억 m³로 9.1% 증가했다. 석탄산업에서 생산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5개월 간에 사할린주의 기업들은 390만 톤의 석탄을 채취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1.6배 더 증가했다.

어류 및 해산물 수확량은 28만3000톤에 달했고 가공량은 22만5900톤(101.3%)이다.

5개월간 사할린주에서 전기, 증기 및 운수, 액화천연가스, 목재, 생선 통조림, 유유와 유제품, 치즈, 버터, 육류, 맥주와 미네랄 워터 등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농산물 생산량이 33.1% 크게 증가되어 생산액은 15억 루블리에 달했다. 육류는 1.7배, 계란은 1.6배, 우유는 6.8% 증가되었고 돼지 사육마릿수는 1.6배, 소 사육마릿수는 6.8%, 가금류는 2.1%, 우유는 평균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시장에서 소비무역량은 3.8%, 서비스는 1.8% 올랐다.

2018년 5월 말 등록된 실업률은 0.6%에 해당했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0.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사할린에서 현대식 폐기물 처리공장 건설 시작

지난 22일 사할린주 정부 확대 회의에서 공공폐기물처리 문제를 심의했다. 매해 사할린주에는 25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500곳의 쓰레기 하치장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이며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가운데 2024년까지 공공폐기물처리를 위한 여러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식 폐기물 분류라인을 갖춘 폐기물처리장을 7개 구역(오하, 노글리키, 토포스코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스미르니호, 우글레고르스크와 코르사코브 구역)에, 사전 분류 폐기물소각장은 8개 구역(홀스크, 네헬스크, 돌린스크, 토마리, 세웨로쿠릴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와 말로쿠릴스크에 마을(쉬코탄 섬))에 건설할 계획이다.

사할린 남부 지역에는 대규모 종합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되어 이곳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아나와 구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간 20만 톤을 가공처리할 예정이다.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는 주중양도시의 쓰레기 재활용 단계로 가기 위한 첫 과정으로서 분리 수거가 이뤄지고 2019년 초부터는 폐기물 압축가공과정이 시작된다.

도시에서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기능을 가진 화물차 40대(유즈노사할린스크에 20대와 네헬스크, 우글레고르스크, 홀스크, 마카로브,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 20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4개 구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실시되는 쓰레기 하치장이 마련된다. 쿠릴 섬에서는 4개의 종합쓰레기 열처리공공 시설이 건설될 전망이다.

폐기물 처리에 주정부는 사업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기획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안에 이미 몇몇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처리-플라스틱, 폐지, 페타이어 등-에 따른 기획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공폐기물 가공처리문제는 오래전부터 숙고해온 사할린주의 절박한 문제 중 하나다. 올해부터는 쓰레기 재활용공장 건설에 착수해야 하고, 경쟁 절차의 조건을 결정하며 2019에 사할린 및 쿠릴 지역에 이런 기업들의 전체 연결망 구축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지적했다.

(주정부자료에서)

<p>새고려신문</p>	<p>2018년 신문주문 계속</p>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새 기획 추진, 학생 60명 한국방문, 광복절 행사에 남북 아티스트 참가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인터뷰

현재 사할린한인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한인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해서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만나 일문일답했다.

- 올해 주한인회에서 정부가 지원한 프로젝트 2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하나는 주정부의 그란트 기획이고 또 하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세대 간 소통, 전통의 계승>이란 기획은 청소년 위주로 하여 창작 및 기획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족전통을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로 이번에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한국학 경시대회를 진행했는데 주제는 <한민족 민속놀이>였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지에 답하고 제2단계로는 활동교실에서 한지로 그릇을 만들고 부채와 형질지갑에 색칠을 했죠. 또한 활동교실이 아니라, 코르사코브, 홉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마카로브 등에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프로젝트에 부산 러시아 대학 교 학생들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노년세대를 존중하며 삶을 지킵시다>란 기획을 지원합니다. 이 기획 일환으로 우리가 이미 한인문화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기획을 진행하는 데에 사할린국립대 임 엘위라 교수와 코르베예와 인나 교수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 일환으로 한민족 전통에 관한 교재도 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무료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봉사차원에서 미용실의 미용사가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어르신들에게 머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 미니미용실을 준비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한인회가 시작한 그란트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마카로브에서 처음 진행한 <우리는 함께다>란 축제를 마카로브 한인회와 지역 정부가 이어가기로 했고 해마다 개최되는 정기 축제가 되었습니다. 주한인회에서 이 축제에 참가하고 올해도 문화센터 소속 아티스트(<하늘>사물놀이그룹, <아리랑>무용단 등)들이 축제에 보낼 예정입니다. 축제는 마카로브에서 7월 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한 가정에서>란 주정부 지원의 그란트 기획을 추진하여 이번에는 홉스크에서 이 축제를 지속하여 올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작년에 홉스크한인회와 함께 <미주호촌 비극의 비밀>이란 지원기획을 추진

했는데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포자르스조에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추념비 현장 정돈사업을 시작했죠. 한인회는 홉스크구역 정부와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작년 가을에는 홉스크구역 정부가 한인추념비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추념비 현장에 탁자와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 안산에 계시는 김태진이란 사업가 한 분이 돕기로 하셨습니다.

- 주한인회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소개하자면요?
-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하는 <사할린 1세 진료 한인 초청진료사업>으로 이번에 한국에서 25명의 어르신들이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같이 가서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6월 14일 한국으로 떠났는데 이미 진료를 받은 사할린 동포 첫 그룹이 이번 목요일 귀국한다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인회와 주이산가족협회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사진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게 될거라 전망합니다.

또 작년에 처음으로 영주귀국하는 분들의 자녀 260여 명이 한국에 계시는 부모들을 만나기 위해 1주일 코스로 모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안산과 인천에 계시는 부모들만 찾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부산을 비롯해 한국의 여러 곳에 사시는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6월 초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으로 185명이 한국 부모님댁을 방문할 겁니다. 7월 말에는 영주귀국하신 어르신들의 역방문이 이루어지고 1세들의 모국방문은 전통적으로 가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3명이 영주귀국을 합니다.
- 이번에 한국에 가서 주한인회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단체 대표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한국 출장 일정이 바빴습니다. 한국에 가서 물론, 이미 10여년간 함께 하는 KIN(지구동포연대) 단체 대표들과 거의 매일 만났고 사업계획도 많이 의논했습니다. 올해 8월 18일 주한인회가 개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남북 아티스트들의 합동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 관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현재 협의를 보는 중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8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18일 주한인회가 개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남북 아티스트들의 합동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 관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현재 협의를 보는 중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8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방한에서 사할린 아리랑제를 추진하는 아리랑학회 기미양 이사야와 만나 제3 사할린 아리랑제 개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한겨레아리랑연합회와 '아리랑 로드 확장'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 사할린 아리랑제는 9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북아 포럼에서 동북아한민족유소년축구대회에 동포 유소년축구팀을 초대합니다. 현재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에 지방 동포 어린이들이

많이 참가했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지방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네요. 사할린 학생 20여 명이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한국으로 떠나는데 이들은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한민족유소년축구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 학생들과만 아니라 다른 나라(일본 등) 동포와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부대 행사로 사할린한인 역사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주한인회에서 한국에 학생 60명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 네, 경기도학생교육원에서 <해외동포학생 초청 한국체험 과정>으로 사할린 동포 3-10학년 60명과 인솔교사 7명을 초청한다는 서한을 사할린한국교육원으로 보내왔습니다. 대상학생은 안산 고향마을에 귀국하신 어르신들의 손자들입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는 주한인회에 학생모집을 위탁했습니다. 지방 학생들이 한국에 무료로 갈 기회가 많지 않아서 우선 지방 한인회를 통해 학생모집을 시작했죠. 학생들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이들은 문화탐방, 체험도 할 예정입니다. 조상들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주한인회는 17개 지방 지부가 있는데 이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지방한인회 거의 모두가 열심히 활동합니다. 특히 코르사코브, 아니와, 홉스크, 마카로브 한인회들이 적극적입니다. 바로 이 한인회들이 현지 정부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한인회가 사할린주 사회원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 대통령선거 때 많은 지방 한인회 회원들이 감독관으로 참가했습니다. 성실히 활동을 해서 주정부로부터 감사장도 받았습시다. 지면을 통해 이에 참가하는 모든 지방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도 노인정 사업을 비롯 여러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크라스노고르스크 같은 경우 한글학교 학생들이 공고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한인회는 스미르니흐 한인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와서 보니까 한인문화센터 입구 계단을 수리하고 계시네요.

- 네, 문화센터 건물이 준공된 지 10여년이 되어서 손을 대야 하는 것들이 많습시다. 올해 우리는 지붕에서 물이 계속 새서 지붕 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계단을 수리하는 중입니다.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돈을 아껴 쓰느라 노력 중입니다.

- 행사도 많고 대표 역할을 행사하는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회가 개최하는 행사와 기획 모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8면에 계속)

이모저모

여객선 '펭귄 33' 호, 7월 말부터 사할린-홋카이도 간 정기 운행 시작

올해 사할린과 홋카이도 간 여객선 '펭귄 33'호 운항에 관련 문제들이 사할린에서 원칙적으로 해결되었다. 현재 '펭귄 33'호가 7월 초에 사할린에 도달하도록 운반선이 싱가포르를 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할린의 주지사과 지역 행정부는 코르사코브와 와카나이 간 연락선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올레크 코제마코 주지사는 "여객선 운항은 사할린주와 일본 간 문화적 발전과 경제적 유대와 협력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향상시키고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018년도 운항은 7월 말부터 9월 22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펭귄 33'호는 코르사코브와 와카나이에서 일주일에 3회 출항할 예정이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국민은 단수비자나 3년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서 2박 3일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러시아 국민의 요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도 성인 7400루블리, 6세-12세 아동은 3600루블리, 6세 이하의 아동은 무료다.

올해 운항에는 학생과 대학생(12세-24세)의 요금을 5500루블리로 하자는 제안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승객 1명당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50키로그램까지며 단체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혜택의 여건을 검

토 중이라고 주지사 홍보실은 전했다.

"핑귄-33" начнет курсировать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Хоккайдо в конце июл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нципиально решен вопрос привлечения на навигацию текущего года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Хоккайдо морского судна "Пингвин-33".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ингапур направляется транспор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ставить его в начале июля на Сахалин.

Как ранее отмеча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сохранить паром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Корсаковым и Вакканам.

— Считаем, что паромное сообщение надо сохранить и развивать в интереса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Японии, создавая тем самым условия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итуацию Олег Кожемяк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навигация 2018 года начнется в конце июл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22 сентября. По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Пингвин-33" будет выходить из Корсакова и Ваккан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три дня и две ночи в Японии сможет провести любой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наличии одноразовой или трехлетней виз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оимость проезда для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остается на уров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7 400 рублей для взрослых и 3 600 рублей для детей от 6 до 12 лет в од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езд детей до 6 лет бесплатный. В навигации текущего года может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о предложение по тарифу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24 лет — 5500 рублей в одну сторону. Бесплатная норма провоза багажа для одного пассажира составляет 50 кг.

Для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льготные условия, сообща-

ет пресс-служба губернатора.

네벨스크 해양전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졸업생 탄생

6월 22일 사할린해양전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반직업교육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이 교육기관에서는 항해사, 선박기관사, 냉동기사 직업을 취득한 정규 학생 25명과 청강생 37명이 졸업하게 되었다.

전문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졸업생 중 수석졸업에, 유일한 여성 졸업생인 마르가리타 칸드바는 해양전문학교 항해학과에 입학하여 항해 기술을 습득하고자 4년 전에 소베트스카야 가완시에서 네벨스크로 왔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성품을 단련하여 '팔라다' 선박에서 실습을 통과한 후, 바다와 자신의 운명을 결속시키길 꿈꾸며 모교를 떠나기 직전에 서있다.

그녀는 "많은 노력을 했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주의깊게 청강한 덕분에 필요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계속 공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마르가리타 칸드바는 졸업생의 날에 주목을 받았다. 대학의 협력진과 경영진은 이 졸업생에게 축하를 하며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우수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한 알렉세이 샤벨닉 네벨스크시장 또한 해양전문대학의 졸업생이자, 현재 이 학과의 학장으로서 2018년도 졸업생들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졸업생들을 위해 대학의 교수들과 저학년생들은 애써 축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8면에 계속)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 대표단, 사할린 방문

지난 23일(토) 3박4일 일정으로 한국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안양협의회 대표단 37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입국하자마자 이들은 바로 한인문화센터로 이동해 사할린한인역사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대표단은 우선 우리말방송국이 제작한 "나는 위령조각이다" 사할린한인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할린 측에서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부회장, 주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회장,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사장이 참가해 동포역사와 해당 조직을 소개했다.

손님들을 환영한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 동포들의 아픈 역사에 관심을 가진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사할린동포 사회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다.

안양협의회 안대중 회장,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등이 사할린 동포사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평통 안양협의회에서 주한인회에 다채로운 색상의 아동 한복 2 벌을 기증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한국 손님들은 코르사코프 방향의 언덕을 찾아 강제동원희생동포위령조각 앞에서 영령들에게 추모를 하고 현지 문화역사 탐방을 했다. 또한 한국어 채택학교로 알려진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를 찾아 다량의 책과 문구를 전달했다.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 안대중 회장은 "열악함에도 곳곳에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는 한인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가 통일의 길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그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문 대통령, 모스크바서 '한러 우호 친선의 밤' 개최 고려인 동포와 러시아 인사 등 200여 명 초청,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기울이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한-러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고려인 동포와 러시아 인사 등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한러 우호·친선의 밤' 행사를 열었다. 초청 손님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오른쪽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사진 청와대)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한-러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고려인 동포와 러시아 인사 등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한러 우호 친선의 밤' 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동포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벅찬 감동을 느낀다"며 "1860년 연해주에 정착한 열세 가구가 지금은 러시아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내일 저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고 "2020년에는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짧은 시간 이룬 양국 발전의 폭과 깊이가 놀랍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역사·한글교육 등을 통해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차세대 동포

들을 위한 직업초청 연구 및 장학금 지원 사업, 무국적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러시아에 체류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지원 사업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연해주를 비롯해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최재형, 이위중, 김만겸, 김경천, 김규민, 구철성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포들과 세르게이 스태파신 러시아 전 총리, 이고리 바리노프 민족청장, 이고리 레비틴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등 러시아 측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행사의 사회는 고민정 부대변인과 한국 문화와 케이팝 애호가이자 모델 겸 배우인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가 맡았다.

러시아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아쿠라트브 올렉과 소프라노 강혜정의 합동공연과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연주도 이어져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재외동포신문)

한국어 예비교원들, 일본·러시아·카자흐 한글학교 현장실습

국립국어원은 국내 대학·대학원의 한국어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63명을 오는 7월부터 일본 도쿄·오사카, 러시아 사할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글학교 실습교원으로 파견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교원에게 국외 현장 경험 확대와 초기 경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와 국민대가 주관한다. 실습학교로는 도쿄 샘물학교, 재일한국인귀속속협회 한글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오사카 건국학교, 알마티 주말 한글학교, 무궁화 한글학교, 사할린 한국교육원, 홈스크 한글학교 등이 참여한다.

예비교원들은 실습에 앞서 2~3주간 현지 사전연수를 통해 파견지에 대한 배경 지식과 실전 수업에 필요한 이론을 습득 후 4주간 현지 실습에 나선다. 왕복 항공료와 현지 숙식·교통비 등은 국립국어원이 지원한다.

교원들은 수업 참관, 모의 수업, 단기 한국어교실



운영 등에 참여하며 문화체험과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실습을 주관하는 경희대 박동호 교수는 "예비교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경력 교원 14명도 함께 파견해 현장에서 수시로 1대1일 지도가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한글학교 교육 경험도 쌓고 현지 교원들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네트워크도 쌓는 연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 11월 포항에서 열린다

러시아 등의 26개 광역자치체가 참석하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오는 11월 초 포항시에서 열린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던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합의한 내용이다.

양국은 그동안 참여범위와 협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지난 22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포럼에는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연해주 등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주정부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상공인 등이 참여한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포럼에서 경제·통상, 문화, 교육, 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을 논의한다.

러시아 측 참여 9개 주정부는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캄차카주, 사하공화국, 마가단주, 추코트자치주, 유대인 자치주 등이다.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의 광역단체가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데 올해 경북도에 이어 내년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열린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의 의장단체를 맡게 된다.

이상학 경북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과 상생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는 물론 참여 단체장 간의 양자 회담,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기업 상담회,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년포럼 등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이끌어 내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 극동지역 인구는 650여만 명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의 28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과 석유·천연가스·광물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경북과 물류 및 자원 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앞으로 남북한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완성되면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물류의 요충지가 된다는 점에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북도는 국제컨테이너항인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잇는 정기항로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산 유엔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포스코 등으로 운송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포항에 사무실이 있는 동북아자치단

체연합(NEAR, 6개국 77단체)을 통해 러시아의 16개 광역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현재도 극동러시아 지역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북방경제권 거점지역으로 포항을 집중 부각시키고 러시아 참가자들에게 영일만항, 포스코, 포스텍 등 지역의 뛰어난 산업·연구개발 인프라를 홍보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기업들이 극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러시아 지자체 및 상공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이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경북도의 북방경제 협력 주도권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포항 영일만항이 북방물류 거점항으로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번 포럼은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평화무드와 국제경제 협력의 큰 물꼬가 트이는 가운데 개최되는 의미있는 행사"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이 유라시아와 아태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뉴시스)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133

тел.: 49-84-02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ы вместе стремимся к общей цели

Интервью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Текст: Михаил Гусман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ТАСС)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спасибо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ами. Мы встречаемся в вашей резиденции, Голубом доме, буквально з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до вашей поездки в Москву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Это уже третья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Что вы ждете от этого визита? И поскольку это уже ваша третья встреча, как складывается ваш личный контакт с на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 Прежде чем ответить на ваш вопрос,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Россию с проведением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2018. Удач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ее сборной помогают придать этому событию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Команда РФ уже в первом матче забила пять голов, устроив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для всех россиян. Желаю вашей сборной продолжать в том же духе и добиться прекрас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Спасибо за ваши добрые слова,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Надеюсь, что сборной Кореи повезет во время вашего визита в игре с Мексикой.

Мун Чжэ Ин: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ваши слова. Мы возлагаем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на вторую игру. Надеюсь, что наши команды - и российская, и корейская - сыграют хорошо и встретят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в полуфинале.

Как говорят в России, поступим по дереву.

Мун Чжэ Ин: У нас с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общее видение перспектив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на Евразий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У господина президента своя политика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РФ и Сибири, моя же политика нацелена на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восточными странами, в том числе и с Россией. У этих политик много общего. При этом Россия для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партнером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будущем.

У нас с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общая цель: установление мира и достижени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Это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ведет к актив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 только двух Кореи. В дальнейшем мы можем вовлечь в этот процесс Россию. При установлении системы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ы сможем говорить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механизма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Мы должны стремиться к этому. Могу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мы с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разделяем в этом смысле общую цель и единое мнение, и мы вместе стремимся к этому.

Вплоть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Россия оказывала нам активную помощ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пример, она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ла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амках Совбеза ООН и в полной мере выполняла их.

Путин также всегда говор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мирным путем.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вы как-то сказали, что не спали ночь с 11 на 12 июня, поскольку 12 июня был саммит в Сингапуре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ма.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результаты этого саммита и насколько эти результаты стоили вашей бессонной ночи?

Мун Чжэ Ин: Результаты саммита США и КНДР в Сингапуре, откровенно говоря, превысили все ожидания. Встреча оказалась плодотворной.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и конфликты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продолжались 70 лет. Теперь пришло время, когда эти две страны должны отойти от взаимной враждебности. Перед нами открывается нов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эпоха, когда мы можем установить систему прочного мира в регионе.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Север заявил, что готов к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а США подтвердили готов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ить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хеньяну.

Обе стороны должны теперь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выполнять эт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ейчас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и вырабатываются меры по выполнению эт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качестве демонстрации готовности, закрыла свой ядерный полигон и высказалась за то, чтоб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закрыть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по разработке раке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Север и Юг совместно прекратили вещание пропаганды на границе,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демонтировала все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е сооружения.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достигл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на время отложить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пока идет мирный процесс. Возможно,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Север вернет США прах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на ее территории. Такие мирные действия могут заложить основы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ускорения диалога между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ранами.

Призываю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сторон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роводить в жизн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сделать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а США долж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объемлющи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ради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му саммиту,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имом,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ваша истори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имом 27 апреля на границе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ы тогда сделали символически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Мун Чжэ Ин: У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существует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который еще не исчерпан. Фото: Reuters

исторический, шаг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ие у вас впечатления от этого саммита? Насколько вы им довольны и как планируете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ваших отношений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имом, Южной Коре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им Чен Ын, несмотря на его молодость, показался мне очень вежливым и открытым человеком. Он отнесся ко мне как и должен был относиться к старшему, с уважением. Мы вели с ним долгие откровенные беседы. В результате, очень многое было достигнуто, но, к сожалению, есть некоторые пункты, которые мы не успели включить в итоговый документ. Но все равно по этим темам мы подтвердили общее понимание.

В ходе самми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им Чен Ын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свою твердую убежденность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н сказал, что может отказаться от всех ядерных программ, если получит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охранения своего режима. Он также проявил больш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к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своей страны.

Итоговый документ, Пханмунджо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отражает стремление лидеров Севера и Юга к достижению мира,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процвет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должно быть дополне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с Россией в виде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мы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им Чен Ыном также нашли общий язык.

Вы упомянули о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ах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й Коре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вы в телефонном разговор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Это может быть электросеть,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газопровод. Какие из этих проектов вам кажутся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Мун Чжэ Ин: У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существует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в том, что касае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гуманитарных, культурных 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Он еще не исчерпан. Мы можем привлечь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 эт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в регионе режима прочного мира. Думаю, что эт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может в том числе и ее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Что касается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могут быть такие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как соединение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и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провода. Их осуществление возможно при наличии необходимых условий.

После соединения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на может выйти на Транссибирскую магистраль. В этом случае грузопоток из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ет пойти через Транссиб до Европы. Это принесет экономическую выгоду не только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о и России.

Мы можем также протянуть газопровод через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тогда получать российский газ сможет не только Южная Корея: мы сможем, например, транспортировать его дальше в Японию.

Мы можем также осуществить план соединения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что позволит нам получать произведенную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Она также может поставлять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е только в Северную и Южную Корею, но и в Японию. Осуществление этих планов поможет приблиз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цветание всех стран Евразийского континента.

Вы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дал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вязя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и это, конечно, справедливо. Чуть ли не в каждом российском доме есть хоть что-то, произведенное в Южной Кореи: телевизор, телефон, стиральная машина, чайник, некоторые ездят на корейских машинах. Выступая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ы рассказали о "девяти мостах", которые надо навести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оссией. Какие из этих "мостов" вы считаете приоритетными, какие уже построены, а какие еще предстоит

возвести?

Мун Чжэ Ин: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ожет развиваться по самым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амые приоритетные из них я озвуч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ходе третье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Мы назвали их "девятью мостам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газ, электроэнерг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оловство, судостроение и так далее.

По эт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у нас есть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к реализации которого мы должны стремиться. Необходимо сосредоточенно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менно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чал работу Комитет по север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через который ид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Россие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 России мы совместно создаем платформы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чрежден День корейского инвестор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и так далее.

В наших странах работает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которая обсуждает самые разные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раз сейчас готовятся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подписаны в рамках моего визита в Россию. В этом уча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но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част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асаясь перспекти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кажу, что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договориться о конкретном плане действий по выполнению этих задач. Мы можем подписать план действий.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межправкомиссия сейчас как раз готовит такой документ, и я надеюсь, что к четвертому ВЭФ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он будет подписан.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ускор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объем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и достиг 19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ст составил 40 процентов.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о. Еще раз скажу, что у нас есть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который еще не исчерпан.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экономика очень важна, но не менее важны и очень ценятся нашими народам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У нас очень много проектов по их развитию: в Корею проводятся праздники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ходят праздник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вы дали свою оценку этой части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 этой связи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В Корею удивите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самые разные. В России отмечают День росси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а в Кореи есть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раздник - День хангыля,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Откуда он взялся, как вы его отмечаете, и вообще какие ваши любимые праздники?

Мун Чжэ Ин: Говорят, что хангыль - самый научный и логичный алфавит в мире. Его создал правитель Седжон, известный своей большой любовью к подданным, чтобы передать свои мысли на письме. Хангыль уникален.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в мире алфавит, который имеет точную дату создания и известного автора. Это записано в исторических летописях. Поэтому мы придаем этому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 даже отмечаем в стране день создания хангыля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Помимо этого у нас есть два традиционных любимых народом праздника. Один из них - это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который в Кореи называется Сольналь. В этот день мы собираемся вместе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едим вместе ттоккук - суп из рисовой лепешки, делим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пожеланиями добра.

Второй праздник - это Чхусок,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Он отмечается осенью,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полевых работ. Тогда мы собираемся вместе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трапезничаем, благодарим друг друга.

Людей, достигших вершины, мы обычно называем успешными.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вы тоже относитесь к таким людям. Какие слова поддержки вы могли бы сказать молодым людям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желающим достичь высот в жизни?

Мун Чжэ Ин: У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есть гора, на которую он хочет взойти. Найти такую гору и бросить ей вызов - это право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Поиск и отход от общепринятых стереотипов - это нормальное явление. Если человек сам находит свой путь, то и время поиска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потерянными временем. Время меняется очень быстро.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привлекает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полностью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ого, что мы имеем сейчас. И когда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сам преодолевает вызов, это само по себе становится для него важным опытом, который придает ему силы.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ветов и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то важно помнить о рол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справедливой конкуренции и дать шанс подняться даже тем, кто потерпел провал. Я думаю, что роль нашего поколения должна заключаться в том,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в полной мере могла бы преодолеть вызовы в новых сферах жизни и чувствовать уверенность в достижимост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цели.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 5)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пройдут 20-26 августа

Очередные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состоятся в период с 20 по 26 август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ихся 22 июня переговоров делегаций Юга и Севера,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Пак Кён Со и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родины Пак Ён Иле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во встреча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о 100 человек с каждой стороны. До 3 июля стороны обмениваются информацией о скончавшихся родственниках, а 4 августа – списками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 Предыдущий раунд встреч состоялся в октябре 2015 года, а в целом с 2000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20 раундов личных встреч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по разные стороны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б их возобновлении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на межкорейском саммите 27 апреля.

В КНДР отменена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ая акция в годовщину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КНДР в этом году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не проводить ежегодную антиамериканскую демонстрацию, приуроченную к годовщине окончани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Associated Press,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является показателем налажив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диалога посл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аммита. Массовые акции против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обычно проводятся в СК с 25 июня по 27 июля. Это самое политизированное и символ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в стра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демонстрац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тысяч человек. Между тем, 25 июн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не стали публиковать критические статьи о США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в этот день материалах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б участниках войны и сражениях, в которых они участвовали.

Сингапур потратил около 12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аммита КНДР- США

Сингапур потратил около 12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роведение недавнего саммита КНДР и СШ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4 июня агентства Reuters и Киодо цусин. В МИД Сингапура сообщили, что основные расходы коснулись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Более детальное содержание расходов обнародовано не было.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бюджет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авлял 14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Известно,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полностью оплатила все расходы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Сингапуре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ые с Ким Чен Ыном, взяло на себ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ингапура. Некоторые местные граждане высказали недовольство данными расходами. Однако эксперты по маркетингу сообщают, что данные вложения позволят получить эффект повышения имиджа страны, в 10 раз превышающий расходы.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Центр по правам пожилых людей ASEM

В Сеуле открыто первое в ми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прав пожилых людей. 25 июня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сообщил, что 26 июня в Сеульском глобаль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по правам пожилых людей ASEM (Азиатско-европейское совещание) - AGAC. Данный центр будет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старения в странах-членах организации ASEM, разрабатывая меры и обмениваясь опытом разных стран в вопросе обеспеч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прав пожилого населения. В 2014 году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предложил проект, включающий создание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центра. В 2016 году на 11-й конференции ASEM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центра в РК.

В Сеуле грядёт очередная скидочная акция Seoul Summer Sale

С 1 по 31 июля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масштабная скидочная акция Seoul Summer Sale 2018. Об этом 26 июня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Сеула и Сеульском туристическом фонде. Всего скидки предоставят универмаги, магазины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учреждения, работающие в сферах медицины, культуры и развлечений.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поставлен акцент на туристов из Китая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компаний, занятых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кулинарии и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RKI)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России подтвердили стремление к мир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22 июня в Москве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аммита подтверждено стремление к мир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актив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Мун Чжэ Ин 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ысказались в поддержку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чного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Это была третья по счёту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ов двух стран. Она состоялась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нижней палате росси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и его встречи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России Дмитрием Медведевым.

В ходе беседы с российским лидером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он высоко оценивает вклад России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двух межкорейских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аммито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ещал и впредь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оцесс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заявив, что он и его страна всегда выступали за диалог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двух Корей.

Коснувшис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К и Россия являются ключевыми партнёрами в вопрос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Евразий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поэтому Россия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Сеул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активизац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тметив, что объём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и достиг почти 20 млрд долларов, но существую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Росси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действовать увеличению объёмов поставок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в РК и продолж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местного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ефти, газа и другого углеводородного сырья.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 итогам



состоявшегося 22 июня в Москве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аммита.

Страны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вести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асающиеся поставок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по трубопроводу на ю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В ходе саммит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начале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одготовк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Достигнута также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между ОАО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и корпорацией «Коре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о проработке проекта организац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еревозок в сообщении РК - Россия - Европа, включая трёхсторонний проект соединения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с участием РК, КНДР и Росс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были подписаны восемь меморандумов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и и отдель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энергетик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инвестиций.

(KBS World)

Мы вместе стремимся к общей цели

Интервью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Текст: Михаил Гусман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ТАСС)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 4)

Известно, что очень многие граждане Кореи исповедуют различные религии и живу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лигиозными предписаниями.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вы - верующий католик.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духовных ценностях корейцев? Как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религия в вашей жизни?

Мун Чжэ Ин: Наиболее важной ценностью для нас является мир. За свою историю Корея пережила много трудностей. Наше твердое намерени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новой вой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 счастью, недавно состоял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прошедший вскоре после межкорейской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кровенное желание корейцев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мира становится вполне достижимым.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стран-соседей, включая Россию, придает нам силы.

Что касается моей религиозности, то она,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оявляется в стремлении к миру. Мои родители были беженцами, которые в ход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отеряли свою землю. Моей семье, потерявшей всех своих соседей, оказывали поддержку католические монахи. Раны, нанесенные войной, зажили, и мы смогли ощутить ценность мира. В знак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начала моя мать стала верующей католичкой. Я также был крещен, когда

учился в третьем классе. Все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лятся о мире.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за эту беседу. Прежде чем мы попрощаемся, могу ли я вас попросить, накануне вашего визита, сказать идущие от сердца слова российским телезрителям, российскому народу?

Мун Чжэ Ин: Обычно люди думают, что Сеул и Москва находятся очень далеко друг от друга.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далеко: чтобы добраться до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ы, надо девять часов лететь на самолете.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то не так, потому что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граничит с РФ и мы являемся соседями.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ходится близко к Корее. Поэтому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огут и должны быть партнерами на пути к установлению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озданию механизма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остижению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континен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исло взаимных визитов граждан двух стран составило 510 тыс. человек. В Корею сейчас проявля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России, много корейцев отправляются туда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Надеюсь, что и больше россиян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нашу страну. Приезжайте к нам в Корею!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т памятник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Пак Кён Ри

20 июня в сквере Восточ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крыт памятник изв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Пак Кён Ри. В церемонии со стороны Р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То Чжон Хван, посол РК в России У Юн Гы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Ли Гю Хён, дочь писательницы Ким Ён Чжу, которая возглавляет культурный фонд «Земля», автор памятника,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вон Дэ Хун. Российскую сторону представляли, в частност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и рект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Николай Кропачёв.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именно в эт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120 лет назад началось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знание писательнице принёс роман «Земля», на создание которого ушло около 25 лет. В своей речи То Чжон Хва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от-

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а даст толчок активизаци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углублению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любви к культурам и искусству РК и России. На постаменте памятника выгравировано известное выражение Пак Кён Ри: «И почему столь яркими для нас становятся и радость, и печаль?» Проект открытия памятника продвигался с 2013 года, когда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а поэту Александру Пушкину. (RKI)

В 2019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должно начать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ых мусор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ось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ласти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в сжатые сроки разработать проекты предприятий по обращению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и определить места под и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жегод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разуется 250 тысяч тонн отходов, появляется 500 стихийных свалок, а действующие полигоны близки к полному заполнению, их эксплуатация должна быть прекращен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Надежда Мошенцева.

Проблему предложено решать комплексно и поэтапно - на островах должна появиться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К 2024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целый ряд объектов. Это 7 современных полигонов с мусоросортировочными линиями - в Охин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Тымо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и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ах и 8 комплексов по сжиганию отходов с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сортировкой - в Холмске, Невельске, Долинске, Томар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Курильске, Южно-Курильске и селе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На юге острова появится крупный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мусоросжиг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Ежегодно предприятие будет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до 20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отходов, поступающих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реди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ового полигона для утилизации мусора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ак ожидается, он начнет принимать брикетированные отходы с начала 2019 года. Будет приобретаться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техника для перевозки таких грузов - 20 машин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еще столько же на дизельном топливе для Невельска, Углегорска, Холмска, Макарова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 сказала Надежда Мошенцева. -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также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чать возведение полигонов с сортировкой мусора в 4 районах.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4 комплекса термической обработки мусор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ременной системы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намерены привлечь и бизнес. На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уже откликнулись несколько островных компаний.

Мы готов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укционах на оказание услуг п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отходов, а также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усоросортировочного или мусоросжиг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ов, - в частности,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Дегтяре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Эко-шельф».

Власти региона, сообщ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окажут помощь так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Будут стимулироваться и проекты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 пластмассы, макулатуры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шин.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могут появить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й вошел в соста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весторам ряд льг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лучают там хорош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своих производств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Скажем, из отсортированного пластика, которого на острове в достатке, можно дела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ую рынком продукцию. Более того, мы готовы субсидировать эти направления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их реализаци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Вопрос переработки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сегодня - один из самых актуальных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еобходимо приступить к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новых мусор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определить условия конкурсных процедур, провести все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процедуры, чтобы уже в 2019 году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лой сети та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таковы итоги обсуждени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ластного нар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 Вахрушеве принимает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Это перво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е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 адаптацию человека после лечения от наркозависимости.

До этого пройти реабилитацию можно было только на нескольких койках диспансера после основного курса лечения. Врачи отмечают, что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было недостаточно. Кроме того, такая терапия не всегда была эффективной из-за совместных контак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пациентов и тех, кто идет на выздоровление.

Часто новые пациенты ведут разговоры о своей прежней жизни. Это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давляет волю излечивающихся. Необходимо разделять потоки таких больных. Лечение в наркодиспансер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нижении физических проявлений болезни, а во время реабилитации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деляетс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избавлению от остаточной тяги к запретным веществам. Терапи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обще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организма и утраченных навыков, адаптацию к

внешней среде, - рассказывает и. о.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нар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Анатолий Байдра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6500 человек - наркозависимых и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рко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состоящих на учете в диспансере.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для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 добровольное согласие и желание самого пациента избавиться от пагубного пристрастия. По д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в, у 40% из числа всех начавших лечение возникает устойчивый стимул к дальнейшей реабилитации. Один из пациенто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лерий. На лечение в Вахрушев он приехал всего два дня назад.

Два года принимал внутривенные вещества. Начал в компании друзей, после нескольких раз остановиться уже не смог. Больше так жить не хочу. До этого была профессия, работал. Сейчас ничего нет. Сам я не смог с этим побороться, - рассказывает свою историю Валерий. - Лечение в наркодиспансере укрепило мысль закончить с таким образом жизни.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приехал с желанием окончательно избавиться от наркотиков.

Условия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максималь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т целям лечения - свежий воздух, удаленность от основных магистралей и соблазнов большого города, проживание в просторных двухместных палатах. Один из принципов лечения -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е и трудотерапия.

Мы прививаем им мысль,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работать, а не праздно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Подъем здесь всегда в 6.30 утра, чтобы пациенты привыкли к распорядку. День расписан по часам - лечебные процедуры, физиотерапия, физ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на тренажерах,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в комнате релаксации, - знакомит с распорядком дня 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лечения заведующи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м отделением Антон Манохин.

К открытию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здани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заменены все системы коммуникаций, вентиляция, установлено лечеб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обустроен пищеблок. В штате сотрудников - нарколог-психолог, психотерапевт, специалисты по физиолечению,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выполнен комплекс рабо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Также в планах - разбить небольшое ого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занятий пациентов и пополнения рациона витаминами.

Ежегодно в регионе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ую помощь получают около 500 ранее наркозависимых человек. Курс лечения длится до двух месяцев. После его завершения человек возвращается в свою среду.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таких пациентов требуется психотерапевт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специальные услов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аморазвитие, чтобы не вернуться к прежне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Помимо пациентов с наркот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ью специалисты готовы принимать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и больных, желающих избавиться от тяги к спиртному - после основного этапа лечения в диспансере. Врачи призывают не откладывать визит к врачу, если не удас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правиться с пагубными привычками.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ём к специалисту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4242) 760882.

Сервис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ом» за первый месяц работы помог решить почти 150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 них сообщили сами жители, передав ва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на открытую онлайн-площадку. Оказавшийся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новый сервис со временем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портал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ом» - это новый интерактивны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ть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жите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 работает уже второй месяц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Зайдя на специальный сайт или используя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горожане могут сообщить о различных нарушениях и проблемах, указав точный адрес и приложив фото. Информацию берут в работу курирующие ведомства - это вс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вет о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ает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 в три раза быстрее, чем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рос.

Уже в первый месяц работы открытая онлайн-площадка собрала почти 350 обращ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142 проблемы удалось устранить оперативно, еще 71 вопрос, требующий более длите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и,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стадии решения. Средний срок ответа составил 6 дней.

Среди обозначенных жителями проблем - некачественный ремонт дорог, плохое состояние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отсутствие водоснабжения, парковка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озелен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не вывезенный вовремя мусор.

Например, проживающий на у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Дмитрий Вакуленко 15 мая оставил на портале заявку о неработающем освещении двор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тот же день она была принята в работу и менее чем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нарушение устранили.

Еще горожане сообщали об открытых канализационных люках во двора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 на улице

Калинина, по проспектам Победы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Реагируя на поступившую информацию, коммунальные службы проверили все колодцы и закрыли крышки люков, либо выставили вокруг них ограждения на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ремонт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денных работ любой пользователь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а может дать оценку действиям исполнителя - «Проблема решена» или «Проблема не решена». В случае если нарушения устранить не удалось, то заявка возвращается на доработку.

Растет запрос на качественное выполн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ом функций, за которое граждане платят налоги и сборы. Сахалинцы хотят, чтобы вокруг был порядок.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щества и власти и была создана данная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Теперь гражданину не нужно писать письма во всевозможные инстанции и долго ждать ответ. Достаточно отправить обращение на сайт или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Попов.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представят проект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Его инициирова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 встрече с участник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Наставник». Оператором нового проекта выступает движение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охождение учащимися 6-11 классов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го теста, цель которого - определить явные и скрытые способности школьников.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ребята могли бы обозначить свой будущ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нтерес дома, на местном уровне,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На втором -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по разным центрам компетенции, как, например,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Сириус» в Сочи. Затем получ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грант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х навыков уже в круп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либо в наших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ях. Мы посчитали, это будет стоить примерно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в год, мы эти деньги найдём. Попрош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готовить, оформить это всё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это будет сделано, - заяв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Финал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пройде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 8 по 12 августа. Для участия в масштаб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на остров съедутся около 3,5 тысяч человек.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 победители отбороч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а также зарубежные команды - пройдут испытания по 62 важным для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компетенциям. К масштабным испытаниям, в том числе, готовится и островная молодежь.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Надежда Фирун признается, что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шила целую коллекцию платьев. Каждый ден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наставников она оттачивает технику швейного дела - готовится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компетенции «Технологии моды». Испытания для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чемпионата определит жребий. Поэтому предугадать заранее, каким будет конкурсное задание, невозможно.

Мне рассказывают, как лучше выполнить тот или иной шов. Подсказывают, в каких ситуациях я могу потерять время, - отмечает Надежда Фирун.

Другая финалистка молодеж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Валерия Макаревич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испытание в компетенции «Парикмахе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Девушка совершенствует технологии выполнения разных причёсок, стрижек и вариантов окрашивания волос. Педагог Валерии мастер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Татьяна Сергиенко считает, что самым сложным элементом финала может стать стрижка по фотографии.

Фотографии мы не видели заранее.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й эксперт. Эти фотографии мы получили только перед самим выполнением модуля. Кроме того, очень мало времени отдается на мужскую стрижку, - говорит Татьяна Сергиенко.

Напомним, что участников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начнут встречать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2 август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твержд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автобусные маршруты для их передвижения. Встречать гостей будут волонтеры,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им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регистрации и снабдя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Участники состязаний познакомятся на острове с самыми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Уника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риобретаетс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останется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что позволит в дальнейшем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ласс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конкрет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На следующем чемпионате станет и созданный центр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호서대, 사할린 이주 한인 초청 '사할린의 날' 행사 마련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사할린 한인 영구 이주 10주년을 맞아 충남 아산시 소화마을에 정착한 주민을 위한 '사할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역사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받은 사할린 한인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서대는 혈당·혈압·물리치료 등 건강체크, 장수 사진 촬영, 노인용 게임 '팔도강산' 체험, 가족과 함께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게임학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영상미디어전공, 항공서비스학과 등 7개학과 4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송해원 학생(화장품생명공학부)은 "사할린 교포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백기부 사할린 교포회장은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보듬어 준 호서대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92년 시작된 영

주귀국사업을 통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은 전국 23개 지역에 3500여명이 있다. 아산시에 는 86명이 살고 있다.

호서대 관계자는 "타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고국에 돌아온 주민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감싸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많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도광사, 사할린동포 효도 여행



한국불교태고종 도광사(주지도공스님)가 지난 23일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33명과 함께 강화도로 나들이 여행을 다녀왔다.

도광사는 고국에 영주 귀국했지만 가족을 떠나 외롭게 지내야 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매년 효도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여행에는 도광사 신도와 천안동남경찰서 불자회(회장 김종한) 회원 등 3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충청투데이)

[우리말로 깨닫다]

끔찍하게 생각하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어떤 단어를 보면 극단적인 생각이 서로 만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끔찍하다'는 말은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참혹하거나 진저리칠 때 쓰는 단어이다. 우리는 주로 이 때 눈을 가리게 된다. '눈 뜨고 보지 못할 광경'이란 말도 '끔찍하다'와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끔찍하게' 여기는 것도 원래는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끔찍이도 귀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끔찍하다'는 말이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극단적인 두 생각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도 생각한다. 한국어 '끔찍'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는 외국인은 부모가 자식을 엄청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끔찍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예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자식이 끔찍할 수 있겠는가? 어찌 부모가 자식을 보기 싫을 수가 있겠는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예쁘다'와 '가엽다'는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말처럼 보인다. 예쁜 사람이 가여운 사람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예쁘다'와 '가엽다'는 말은 서로 통하지 않을 듯 통하는 말이다. 예쁘기 때문에 보호하고, 아끼게 된다. 일본어에서도 예쁘다(kawaii)와 가엽다(kawaisouda)는 비슷한 단어이다. 일본어에서도 두 어휘의 느낌이 통하고 있다. 다른 언어도 살펴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 너무 예뻐서 가여운 마음이 생긴다. 쥐면 터질새라, 불면 날아갈새라 보살피는 게 부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은 예쁘면서도 가엽다. 안쓰럽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마음에 예쁘고도 가엽다. 가여운 것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 예쁘고 가여운 마음에는 어려움이 느껴진다.

내가 훈민정음을 보면서 '어엿비 여겨'라는 표현에 자꾸 마음이 가는 이유도 두 의미가 함께 다가오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어엿비'를 단순히 '불쌍하다'의 의미 정도로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어엿비'는 '불쌍하다'와 '예쁘다'의 두 감정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두 감정은 그다지 다른 감정도 아니다. 예쁜 것과 가여운 것은 어찌 보면 같은 감정이다. 우리말과 중국어가 서로 달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자(漢字)로 옮기지 못하는 백성을 바라보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느껴진다.

어떤 단어는 '학자(學者)'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단어의 뜻이 더 정확하게 보인다. 논리적으로 절대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단어 속의 의미도 서로 쉽게 맞닿기도 한다. 우리는 두 극단이 만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언젠가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가슴 속에 남아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로 너희를 끔찍하게 생각하셨다." 나 역시 두 아들을 보면서 끔찍하다는 말을 떠올리곤 한다. 나는 '끔찍하다'는 단어를 감정으로 만났다. 그래서 그 의미가 참 아프다. 4월, 예전에는 4.19와 진달래꽃으로 기억되었는데, 이제는 세월호와 노란 리본으로 기억된다. '끔찍하다'는 말이 더욱 아프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중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발전과 확산' 방안은?

제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서 개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회장 백태현, 이하 중앙아 한교협)가 주최한 '제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가 6월 21일과 22일 양일 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소재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동양학 캠퍼스에서 열렸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13개 대학에서 40여 명의 한국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날인 21일에는 개회식과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발전과 확산'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장(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전승민 주말마다총영사, 나삼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장이 축



사를 통해 축하의 뜻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학 연구 수요를 감당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갖추며, 이러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일에는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4년 임기동안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백태현 교수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박 넬리카자흐 세계언어대 AKS 중핵대학 사업단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총회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 백태현 현 회장, 박 넬리 신임회장, 한 넬리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소장, 박환 수원대 교수 등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단체의 노력이 적게나마 결실을 맺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결실이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정식 출범한 중앙아 한교협은 그동안 홈페이지(<http://canks.asia>)를 개설하고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연 1회), 소식지 '한국학 뉴스레터'(연 2회) 발행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재외동포신문)

오징어덮밥 - 매콤하고 달콤한 다이어트 음식

오징어는 동맥경화증이나 혈관계질환 치료에 좋으며 여성의 빈혈이나 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이다.

밀가루 음식이 아닌 '밥'으로 든든하게 끼를 먹을 때,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주로 제육덮밥을 주문한다면, 여자들은 오징어덮밥을 곧잘 주문한다. 든든하게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살찔 염려가 없는 사랑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이다.



양배추와 같이 볶으면 칼떡궁합

쫄깃쫄깃 씹는 맛이 좋은 오징어는 단백질 함량이 육류에 비해 높으면서도 칼로리는 낮은 식품이다. 여기에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의 채소를 듬뿍 넣어 볶아내는 오징어볶음은 산성 식품인 오징어와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의 궁합

을 기가 막히게 맞춘 음식이다. 오징어와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오징어는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이고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에 지방 분해 효과가 뛰어난 캡사이신이 듬뿍 들어 있는 고춧가루나 고추장으로 볶으면 그 효과가 배가된다.

오징어와 삼겹살의 랑데부, 오삼불고기

오징어볶음만으로는 뭘지 아쉽고, 제육덮밥은 너무 기름져서 부담스러울 때 적당한 음식이 있다. 바로 오징어와 삼겹살을 함께 양념해 볶은 오삼불고기다.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아쉬운 사람들은 오징어와 돼지고기 사이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오삼불고기는 그런 상황에서 고르면 딱 좋은 음식이다.

다이어트를 돕는 고추차

고추를 듬뿍 넣은 음식은 10~20% 정도 칼로리를 낮춰 주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고추차까지 곁들인다면 금상첨화! 보리차나 녹차, 홍차를 끓인 뒤 마른 고추 2~3개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인 다음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 두고 수시로 마시면 된다.

(<코리아넷>에서)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자신의 친척과, 교수들, 친구들, 동기들과 이별하고, 졸업생들 대대로 이어져 수행되는 전통적인 비밀의식을 치르기 위해 남은 며칠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비밀의식은 밤에 사할린 해양전문대 본관 앞 공원에 있는 겐나지 네웰스크 체독 동상에 줄무늬 러닝 셔츠와 겨울 코트를 입히고, 선원 모자를 씌우는 것이라고 네웰스크 행정부가 전했다.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невеличской мореходки среди выпускников оказалась девушка

22 июня учащиеся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рского колледжа были вручены рабочие дипломы о средне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В этом году из стен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выпустились 25 студентов очного и 37 заочного отделений, которые освоили профессии судоводителя, судового механика и рефмеханика.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колледжа среди выпускников единственная девушка, да еще и с красным дипломом.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Маргарита Кандыба приехала в Невельск из города Советская Гавань, чтобы поступить в мореходку на судоводитель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 освоить навыки судовожд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блестяще освоила учебную программу, закалила характер, прошла практику на паруснике "Паллада" и теперь, на пороге прощания с альма-матер, мечтает связать свою судьбу с морем:

— Я очень старалась, внимательно слушал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и получила необходимые знания. Я планирую учиться дальше,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Маргарита Кандыба в день выпускника находилась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В ее адрес звучали добрые пожелания от руководства и партнеров колледжа, были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Поздравил курсантку, получившую красный диплом, и мэр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ей Шабельник, который сам выпускник невеличской мореходки, являлся ее директором и име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выпускникам 2018 года.

Силами учащихся начальных курс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лледжа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праздн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Ещ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у них будет на то, чтобы попрощаться со своими, ставшими уже родны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друзьями, однокурсниками и выполн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й тайный ритуал, совершаемый выпускниками многих поколений: на памятнике адмиралу Геннадию Невельскому, расположенному в сквере рядом с главным зданием Сахморколледжа, ночью обязательно появятся морская тельняшка, зимний бушлат и фуражка, сообщает ИА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невеличску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Сасхалин карате 선수들 중국 '동방의 별' 대회에서 2개의 메달 획득

Сасхалин 가라테 선수들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동방의 별' 국제 교류신 가라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는 중국 푸위안시에서 열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선수들 280명이 시합에 참가했다. 13명의 가라테 선수들은 사할린주를 대표했다.

복잡하고도 치열한 격투 결과로 남자 체급 불문 부문에서 사벨리이 로모노브스키 선수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금메달을, 체급 60킬로 이하16-17세 선수 부문에서 레오니드 소스노브스키(코르사코브)가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관광청소년정책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каратисты завоевали две медали на "Звезде Востока" в Китае

Сахалинцы заня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нире по киокусинкай "Звезда Востока" в Китае.

Состяз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Фуяне. В турни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8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оссии и Кита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или 13 каратистов.

По итогам сложных и бескомпромиссных поединков среди мужчин Савелий Ломовски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оевал золото в абсолютном весе, а Леонид Сосновский из Корсакова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серебряной медали в категории 16-17 лет до 60 кг,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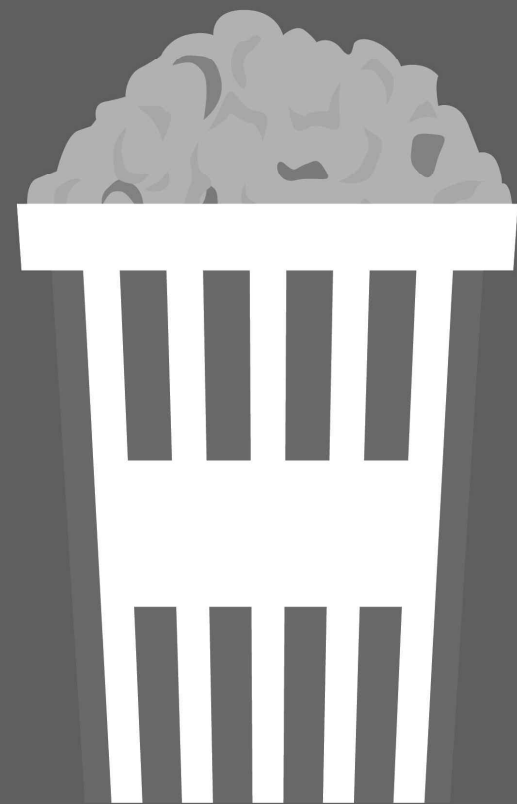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усти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